사법리스크 족쇄 벗은 이재명… '친기업·경제회복' 가속

공판 연기…경제행보 올인
"경제 살리는 중심은 기업"
중도 확장·대세론 굳히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이 대선 뒤로 연기되며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 풀려나자 8일 곧바로 경제 행보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공판 기일을 15일로 잡았다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민주당 반발에 전날 '공정성 논란을 없애겠다'며 일정을 대선 뒤로 미뤘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일까지는 일단 사법리스크 문제에서 벗어난 만큼 경제와 민생 이슈의 고삐를 세게 잡아 쥐고 '준비된 대통령' 면모를 부각, 중도 확장과 '대세론' 굳히기에 나서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다.

이 후보는 법원의 공판 기일 연기 결정 이튿날인 이날 경제 관련한 일정으로 시간표를 가득 채웠다.

우선 첫 일정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했다.

이 후보는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정책 제언을 들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생을 살리는 일이고,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바로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면 적극 수용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과 소통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친기업', '경제 성장' 메시지를 발신해 공격적인 중도·보수 표심 확장에 나서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연초부터 '회복과 성장' 슬로건을 내걸고 실용주의 경제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3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강조했고, 4대 그룹(삼성·현대차·SK·LG) 싱크탱크 수장과도 면담해 "기업인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경제5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경제, 민생 비전을 여과 없이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파탄 낸 경제를 이재명 후보의 먹사니즘으로 수습하고, 잘사니즘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중앙선대위 직능본부(박홍근·남인순 본부장)와 각종 전국 직능단체와의 정책 협약식에 자리했다.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한국사회복지연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약 27개 직능단체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들 '풀뿌리' 경제·민생 분야 단체들의 정책 요구 사항을 듣고 지지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이 후보의 경제 중심 행보에 보조를 맞춘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금융노조를 찾아 정책협약식을 하고, 선대위 산하의 '코스피 5000 시대 위원회'(강준현·오기형 위원장)는 정책 협약식을 연다.

정책 행보도 강화한다. 이 후보 직속 기구인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조정식·이종석 위원장)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출범식 및 첫 대책 회의를 열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및 한반도 평화 구상 정책 전략 수립에 나선다. 연합뉴스

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거연락소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다짐하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민주, 12일 광화문광장서 첫 공식 유세

'광장의 유세' 콘셉트

더불어민주당이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유세를 시작한다.

박정 선대위 유세본부장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유세의 전반적인 콘셉트는 '광장의 유세'로 잡았다. 박 본부장은 "특정한 테마를 가진 도시를 연결해 하나의 '벨트'를 구축하고 이를 유세 공간인 면으로 확장하는 전략"이라며 "벨트는 이재명 후보가 만들려는 '진짜 대한민국'의 테마"라고 강조했다.

첫 유세 장소로 광화문을 정한 이유로는 '빛의 혁명'의 상징성을 들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이후의 '내란 극복'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지칭한다.

이재정 본부장은 "124일 동안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국민들의 함성을 유세의 광장으로 연장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내란에 멍든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임을 선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광화문에서 유세를 시작한 뒤 첫 번째 유세 벨트는 'K-이니셔티브 벨트'"라며 "추격의 경제를 넘어 선도 경제를 만들겠다는 의미이고, 모방의 시대를 넘어 주도하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김현수 기자

"90% 압도적 지지를"…민주 광주시당 선대위 출범

"내란 종식, 새로운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출범식에는 양부남 총괄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박지원 중앙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정청래 골목골목선대위 광주전남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는 이종석 기독교교단협의회장, 지선스님 무량선원 주지스님, 오은도 원불교 교규장 등 종교계 인사와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민형배·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균택 의원 등 12명이 임명됐다.

상임고문단으로는 박광태·이용섭 전 광주시장과 박혜자·송갑석·이병훈·이형석 전 광주시당 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최영호 전 남구청장, 서대석 전 서구청장, 유태명 전 동구청장, 윤풍식 서광회 회장 등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선거대책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4월 윤석열을 파면시켰지만 내란 세력의 야욕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과 내란의 연장, 통합 혹은 분열의 시대의 기로에 서있다. '진짜 대한민국'의 길을 여는 역사적 사명이 주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시민 100만 유권자 투표, 90% 득표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압도적 승리를 위한 결집을 호소했다.

박지원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계엄·쿠데타를 극복한 배경에는 5·18정신이 있었다"며 "또 다시 이 나라가 김건희 후속 국가 시즌 2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다수의 민심을 대변한 죄밖에 없는 사람을 벼랑으로 모는 이 현실에서 광주가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정청래, 대선기간 광주·전남서 '한달살이'

선대위원장 자원 밝혀
"지극정성 들여야 할 곳"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이 6·3 대선기간 광주·전남에 머물며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에 전념하겠다며 '광주·전남 한달살이'를 예고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과 함께 광주·전남 공동위원장(골목골목 선거대책 위원회)를 맡았다.

박 의원은 전남에 집중하고, 정 의원은 광주 5개구를 훑고 다닐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최근 광주 지역 의원들과 만나 선거운동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에 '내가 광주·전남을 자원한 이유'란 제목의 글을 게재해 "저는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 운동 기간에 한달동안 호남에 숙소를 정하고 주로 광주·전남에서 죽을 힘을 다해 '이재명 대통령'을 외칠 생각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기존의 선대위 개념을 혁신해 실사구시형 지역담당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를 구성하자고 당에 제안을 했고, 광주·전남 지역을 맡겠다고 자원했다"며 "지난번 영광군수 재선거에 10번이상 지원유세를 갔다. 골목 구석구석 방문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지극정성으로 영광선거에 총력을 기울인 덕분에 영광군수 선거는 승리했고, 저는 명예 영광군민이 됐다"며 "이번에도 같은 컨셉이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은 최근 담양군수 재선거 패배를 광주·전남이 민주당에 주는 경고로 해석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광주·전남이 예전과 다르게 민주당의 일방적 지지가 아니라는 인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 의원은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텃밭인 광주·전남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역 선거운동을 자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광주·전남이 민주당에 우호적인 지역인 것은 맞지만, 오히려 더 지극정성을 들여야 할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광주·전남 골목 구석구석, 군단위, 면단위는 물론 논두렁·밭두렁까지 찾아가 '왜 이재명 대통령인가'를 진정성 있게 설파하겠다"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6월 3일은 이 시대적 사명을 구현하기 위한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다. 호남 국민들을 낮고, 겸손하게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현수 기자